

## 제12회 「환경보전홍보대상」 수상작 발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2007 제12회 「환경보전홍보대상」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환경보전홍보대상은 환경관리공단이 국민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광고)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이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번 공모전에는 광고기획서 부문 44점, 인쇄매체광고 부문 526점, 사진 부문 768점 등 총 1,338점이 출품되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광고기

획서 부문 12점, 인쇄매체광고 부문 22점, 사진 부문에서 33점 등 총 6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각 부문별 대상에는 광고기획서 부문에 (주)준콤의 배형만, 유기성, 김혜진, 이수민 씨가 응모한 「환경파괴 D-day」가, 인쇄매체광고 부문에는 남서울대학교 노은석, 최지은, 김경복씨의 「아름다운 우리환경 우리 함께 이어 나가요」가, 사진 부문에서는 두영석씨의 「가창오리」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배포되고,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여 나가는데 활용된다. ☺



### ◆ 인쇄매체광고 부문 – 대상(아름다운 우리 환경 우리 함께 이어나가요)

노은석, 최지은, 김경복(남서울대학교)

◀ 우리가 이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어 내려온 우리환경을 더 훼손하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이어주는 의미의 광고이다. 이어간다는 의미의 매개체로 우리가 옛부터 놀이로 하고 있는 실뜨기를 선택하였다. 실뜨기를 환경보호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실이 아닌 넝쿨로 실뜨기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실뜨기의 모습에서 환경문제를 하나하나 함께 풀어나가자는 의미를 보여주었고 무엇인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실을 넝쿨로 바꿔줌으로써 소중한 자연환경을 후손까지 이어나가자는 의미를 강조해 주었다.



### ◆ 사진 부문 – 대상(가창오리)

두영석

◀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해 금강하구를 찾는 가창오리. 최대 60여만 마리의 군무를 볼 수 있는 장관을 연출하는데, 이번에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